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22개 시·군 '상생발전협약'... 경쟁력 강화·협력모델 모색 한전공대 설립·농어민 수당·상품권 발행 등 적극 협력키로

전남도와 22개 시장·군수가 주요 현안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25일 강진군청에서 '상생발전협약'을 맺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모색, 확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해 7월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처음으로 만나 상생협약을 맺고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지원 등에 협력키로 약속한 이후 두 번째다.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 ▲전남형 농·어민 수당 도입

▲새전남북교류평화센터 설립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예정이다.

시장·군수들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등을 벌이는 한편, '한전공대 범시민 설립지원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한전공대 발전방안 및 지역사회, 대학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 수시로 제안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장들은 '농·어민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남도는 오는 7월께 마무리되는 농민수당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급 대

상과 지급 액수, 지급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농민수당을 1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통일시키고 시·군 재정 일부는 전남도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남도는 다음달 권역별 공청회, 도·시·군 협약을 거쳐 오는 9월 관련 조례안을 만든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진 시기의 경우 미리 진행중인 지역이 있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농민수당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광양시와 화순·함평·해남·강진군 등 5개 시·군으로 이들 시·군은 지난해 말부터 농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 협의가 진행중이다.

새전남북교류평화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남북교류평화센터는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복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의 경우 지자체가 주체가 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려운데다, 기존 시·군 출연으로 운영중인 민간협의체(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체)를 통한 남북교류사업의 연계 등도 고려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공동대표와 이사, 감사 등 12명 안팎의 임원을 두고 전남도와 22개 시·군, 종교계, 경제계, 민간단체 등 각계인사가 회원으로 참여한다.

자치단체장들은 '새천년 상품권' 발행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손을 맞잡는다. 전남도는 현재 13개 시·군이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품권 브랜드 명칭을 통일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될까 오늘 시험가동 비공개회의... 합의 도출 주목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논의할 회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비공개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역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나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시험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중요한 회의를 구체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연기한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의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RF 갈등 해결 기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25일로 예정된 7차 회의를 다음달 9일로 미루기로 했다.

애초 7차 회의는 지난해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에 합의한 6차 회의 이후 세부 가동 일정과 최종 합의서 작성 등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11일로 잡혔다가 25일로 미뤄졌고 다시 5월 9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대신, 이들은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 판교지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열기로 했다.

거버넌스 안팎에서는 제 7차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비공개회의라는 점에서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6차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 가동을 2개월 간 진행한 뒤 60일간 분 가동을 실시키로 합의한 만큼 잠정 합의에 현실화하기 위한 절충점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시험가동 잠정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자녀 등교를 거부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과 지역난방공사와 민주당 간 물밑 접촉도 감지되면서 다음달 열리는 회의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관심이 쏠린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 6조7천억원 규모 추경 편성

미세먼지 7000t 감소·일자리 7만3천개 창출 기대

정부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직접일자리 7만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

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전체 6조 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000억원, 산별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7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연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연합뉴스

샵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 환 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해양쓰레기 제로, 깨끗한 전남바다' 고흥서 결의대회 열고 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없는 전남 해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남도는 24일 고흥 녹동항 일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어업인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제로화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해양쓰레기 제로화' 의지를 다짐하고 해양쓰레기에 대한 지역 어업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결의문 낭독,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자는 취지의 제로화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녹동항 수협

위판장 앞에서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 및 녹동항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쓰레기 없는 깨끗한 전남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제로화 자정결의대회가 24일 오후 고흥군 녹동항 수협 녹동항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귀근 고흥군수, 황주홍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해양쓰레기 제로화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27일 '시민 체험형 양봉장' 개장

광주시는 오는 27일 시민이 벌을 키울 수 있는 '2019년 시민 체험 양봉장'을 연다.

2016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시민 체험 양봉장'은 (사)한국양봉협회 광주시광역시지회에서 주관하며, 북구 망월동 인근 양봉단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사업은 기존 양봉장 체험자들의 만족도와 체험 인원 확대 요구에 따라 180명으로 확대됐다. 신청자는 5월부터 최종 채플 때(7월 초 예정)까지 매주 토요일 정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참여 시민에게 벌통을 대여

한 후 현장에서 양봉에 대한 교육·체험 등을 실시하고, 벌통에서 생산된 벌꿀 전량을 체험자가 균등 분배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시 김병음 생명농업과장은 "양봉 체험을 통해 도심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거리 대지 790㎡ 3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음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광명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담 3818㎡ 투자가치 양호 1억5천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다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곡성 임면 매실밭 13000㎡자연인생합작합 신고는 2억5천 매도 1억2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1084㎡ 원룸·다세대 적합 8억7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강진 성전면 월산산 밑 4차선접 4630㎡ 대형자주지 인근 노인병원·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함평 염산면 바다 접 땅 1280㎡ 건평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25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동구 충장로 5가 최고 상업지 1707㎡ 다양한 사업 적합 84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펜션3층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 ✓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기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외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